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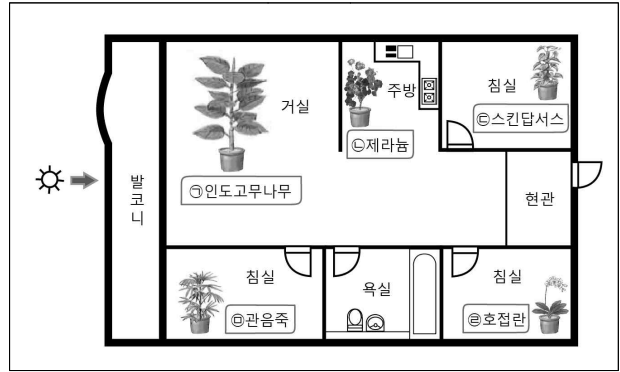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숲길을 걸으며 상쾌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는 바로 식물들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도 식물들의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원리와 실내 공간의 특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물이 어떻게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지 살펴볼까요? 식물의 있는 실내 공간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흡수하여 광합성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때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광합성 속도가 빨라져서 식물의 잎은 더 많은 오염 물질을 없애 줍니다. 또한 공기 중 일부 오염 물질은 화분의 토양에 흡수된 후 식물과 공생 관계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제거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나오는 수분, 또 광합성 과정에서 나오는 산소로 인해 식물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든지 실내 공간에 두기만 하면 공기가 쾌적하게 바뀔까요? 물론 대부분의 식물들은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지만, 공간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식물을 놓아둔다면 공기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숙면을 취하는 공간인 침실에는 낮이 아닌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호접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에는 각종 냄새와 암모니아 가스를 잘 제거하는 관음죽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경우에는 스킨답서스를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스킨답서스가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공간의 면적이 넓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이죠? 따라서 거실에는 크기가 커서 많은 양의 오염 물질을 잘 제거하는 인도고무나무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잘 들지만 외부로부터 오염 물질이 잘 유입되는 공간인 발코니에는 특히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고 다양한 오염 물질을 잘 제거하는 제라늄이 적합합니다.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실내 공간의 특성에 맞게 식물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강연을 들으며 시각 자료를 본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크기가 커서 넓은 공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적합하므로 거실에 배치된 것이 적절하군.
- ② ㉡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고 다양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적합하므로 발코니에 배치되는 것이 좋겠군.
- ③ ㉢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주방에 배치되는 것이 좋겠군.
- ④ ㉣은 밤보다 낮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침실에 배치된 것이 적절하군.
- ⑤ ㉤은 각종 냄새와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데 적합하므로 욕실에 배치되는 것이 좋겠군.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내용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변모 과정을 드러내어 역사적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개념을 정의하며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을 언급하여 대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양에 흡수되는 오염 물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②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과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③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수분이 식물에서 나오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 ④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은 오염 물질이 제거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⑤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려면 공간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식물의 개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4~7] (가)는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 공고문]

2018년 △△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을 모집합니다. △△시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개최 등과 같은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대상: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선발 방법
 - 1차 (서류):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이 포함된 자기소개서 심사
 - 2차 (면접):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 질문

(가)

저는 저희 학교에서 열린 '△△시 청소년참여위원회들과의 소통의 장'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참여위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번에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은 창의적 능력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자치회장으로서 '마음을 전해요'라는 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활동도가 낮았던 게시판에 평소 친구들에게 느낀 고마움을 정기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우 관계는 더욱 좋아졌고 학년 말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매우 좋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창의적 능력이란 의미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아이디어로 공동체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서 저의 창의적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자치회 임원 활동은 저의 소통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자치회 회의 중에 제 의견만 강조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 결과 합의점을 원활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양할 수 있었던 소통 능력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서 핵심적인 자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중 첫 번째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에 있는 학교들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 탐색 활동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강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진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와 대학이 협약을 맺고 내실 있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학생들에게 충실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의 특색 있는 문화와 청소년을 이어주는 '한마음 축제'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문화에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더해진 축제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 청소년참여위원이 된다면 저의 창의적 능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지원자: 안녕하세요? 지원자 □□□입니다.

면접관: 반갑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지원자: 저는 저희 학교 행사에서 만난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자치회와 학생자치회 [A] 임원 역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면접관: △△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지원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시의 정책 제안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지원자: 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앞 도로에 안전한 등하교 [B]를 위해 횡단보도보다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시 [B] 홈페이지에 올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관: 그렇군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보니 '마음을 전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원자: 몇몇 학생들의 장난으로 다른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메모를 적게 받은 친구들은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설득하여 많은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면접관: 공동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사람들과도 공감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겠군요. 그 밖에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서 제안한 정책 중 '한마음 축제'의 목적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해 보세요.

지원자: 축제의 목적은 △△시의 문화를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체성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하지만 축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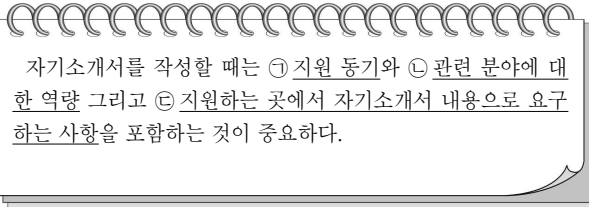
면접관: 네, 맞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히 답변하면 됩니다.

지원자: 감사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시의 특색을 살려 축제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한 또래 친구들에게 우리 시의 유래와 특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지원 분야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지원자가 자신이 지닌 자질을 언급하며 지원 분야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 분야에 대한 자기 점검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지원자가 자신의 독서 경험을 언급하며 지원 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5.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보기>는 ㉠~㉣을 고려하여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 ㉠을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알게 된 계기를 언급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밝혀야겠어. ㉠
- ㉡을 부각하기 위해, 학급자치회장으로서 창의적인 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제시하여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줘야겠어. ㉡
- ㉢을 부각하기 위해, 학생자치회 활동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제시하여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통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 ㉣을 고려하여, 현재 △△시에 있는 학교들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 탐색 활동의 장점을 제시하고 '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강조해야겠어. ㉣
- ㉣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문화와 청소년을 이어주는 축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6. [A] ~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가)에서 제시한, 다른 시와 △△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비교한 내용을 언급하여 지원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 (가)에서 제시하지 않은, △△시 홈페이지에 학교 앞 육교 설치에 대한 정책 제안 경험을 언급하며 지원 분야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가)에서 제시한, 학급자치회장이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갖춰야 할 중립적 역할에 대한 깨달음을 언급하며 지원 분야에서 요구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가)에서 제시하지 않은, 청소년의 주체성 함양 효과를 언급하여 축제 운영이라는 청소년 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E]: (가)에서 제시하지 않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축제 운영에 관한 정책의 실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7.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접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원자의 경험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② 지원자의 질문을 들은 후 긴장을 풀어주는 말을 하고 있다.
- ③ 지원자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다.
- ④ 지원자의 답변을 들은 후 지원자가 깨달은 점을 추측하여 말하고 있다.
- ⑤ 지원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8 ~ 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동아리 부스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우리 학교 교지에 글을 쓰고자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설득하는 글.
- **주제:** 체험 및 전시 동아리 부스를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년 말 동아리 발표회 날을, 오전에는 부스를 마련하여 체험 및 전시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강당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체험 및 전시를 운영하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아리 부스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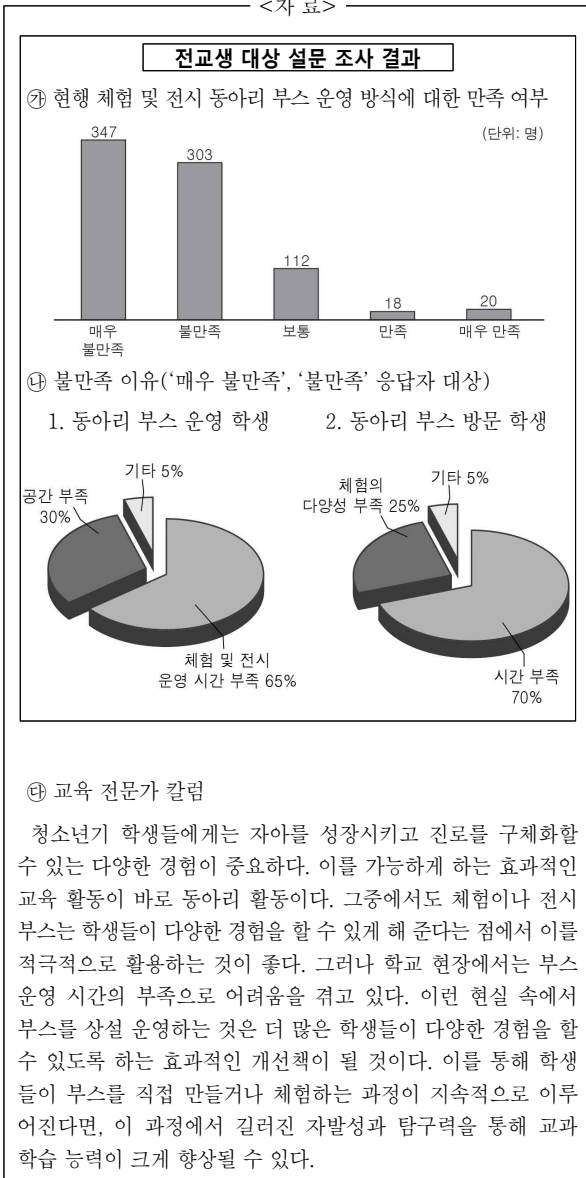
이 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우선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보니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행 부스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동아리 부스를 운영했던 친구들은 짧은 운영 시간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체험 활동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전시물들도 다양하게 보여 주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스를 방문했던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여 체험과 관람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체험 및 관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의 부스 운영 방식의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아리 부스를 상설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스를 상설로 운영하면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준비한 체험 활동이나 다양한 전시물들을 친구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부스를 방문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체험과 관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아리 부스가 상설로 운영되면 그것이 학생들의 교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부스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도 크다. 무엇보다도 부스 상설 운영으로 체험 및 전시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상설 부스 운영을 통해 나누는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흥미와 관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아리 부스를 상설로 운영하는 경우 부스 운영 시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수 있으니 학교 환경 정화에 유의해야 한다.

8.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현행 동아리 운영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의 종류 및 운영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③ 글감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동아리에서 부스 운영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 ④ 예상 독자의 소속을 고려하여,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 부스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내용이 학생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㉗을 활용하여,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해야겠어.
- ② ㉗-1을 활용하여,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현행 부스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해야겠어.
- ③ ㉗을 활용하여,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추가해야겠어.
- ④ ㉗-1과 ㉗을 활용하여,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의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을 해결하는 데 부스 상설 운영이 효과적인 대안임을 부각해야겠어.
- ⑤ ㉗-2와 ㉗을 활용하여,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해야겠어.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㉚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교지 편집부의 검토 의견]
초고 잘 읽었습니다. (㉚)하여 마지막 문단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쓴 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상설 부스 운영을 통해 나누는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흥미와 관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① 동아리 활동의 가치는 추가, 동아리 부스 운영의 효과는 삭제
- ② 동아리 활동의 가치는 추가, 동아리 부스 상설 운영의 유의점은 삭제
- ③ 동아리 부스 운영의 지원 방안은 추가, 동아리 활동의 유의점은 삭제
- ④ 동아리 부스 상설 운영의 의의는 추가, 동아리 부스 운영의 가치는 삭제
- ⑤ 동아리 부스 상설 운영의 의의는 추가, 동아리 부스 상설 운영의 유의점은 삭제

11. <보기>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교체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두 음절이 인접한 경우 ㉚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㉜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음운이 교체될 때, 발음의 결과 ㉘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나 ㉞ 뒤의 음운만 변한 경우도 있지만 ㉝ 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 ① '마천루[마철루]'는 ㉚이면서 ㉘에 해당한다.
- ② '목덜미[목떨미]'는 ㉚이면서 ㉞에 해당한다.
- ③ '박람회[방남회]'는 ㉚이면서 ㉜에 해당한다.
- ④ '쇠붙이[쇠부치]'는 ㉜이면서 ㉘에 해당한다.
- ⑤ '땀받이[땀바지]'는 ㉜이면서 ㉜에 해당한다.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기 2>

- 나는 보통이를 ㉠ 도라가다 예쁜 꽃을 보았다.
- 바닷물이 빠지자 갯벌이 ㉡ 드러났다.
- 날씨가 너무 더워서 ㉢ 얼음이 녹았다.
- 건축 기사가 건물의 ㉣ 노피를 측량했다.
- 요새 동생이 밥을 잘 먹지 못해 ㉤ 홀쭉기가 되었다.

- ① ㉠은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돌아가다’로 정정해야겠군.
- ② ㉡은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드러났다’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군.
- ③ ㉢은 제19항을 적용해 ‘얼음’으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군.
- ④ ㉣은 제23항을 적용해 ‘높이’로 정정해야겠군.
- ⑤ ㉤은 제23항을 적용해 ‘홀쭉이’로 정정해야겠군.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답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상황에 맞게 문법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피동 표현 등이 있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서 실현되며,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로 실현되기도 한다. 주체 높임에는 높임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과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해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보통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로 실현된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같은 격식체와 해요체, 해체와 같은 비격식체로 나뉜다. 보통 공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며 상대를 높일 때에는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사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드러내며 높일 때에는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사용한다.

한편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체험으로 함을 표현하는 것은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 그런데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거나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피동 표현은 능동의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거나, 동사의 어간에 ‘-어/아지다’, ‘-게 되다’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피동 표현이 실현되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므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간혹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으로 결합하여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표현이 되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동 표현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중요하다.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회장이 학급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ㄴ. (언니가 동생에게) 나는 지난주에 할머니를 뵙고 왔어.
ㄷ. (형이 동생에게)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니?
ㄹ.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옷이 멋지십니다.
ㅁ.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께 다녀왔어요.

- ① ㄱ: ‘회장’은 공적인 상황에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인 ‘학급 친구들’을 높이고 있다.
- ② ㄴ: ‘언니’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ㄷ: ‘형’은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ㄹ: ‘학생’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ㅁ: ‘아들’은 조사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1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어제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 한 봉사활동은 어땠어?
학생 2: 응, 좋았어. 강아지들과 놀아 주고 산책도 했어.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이 ㉠ 달진 성금도 전달했지.

학생 1: ㉡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 구조되는 데 성금이 ㉣ 쓰인 단고 해서 나도 모금에 동참했어.
학생 2: 아, 그래? 유기견 보호 행사가 다음 주에 ㉤ 열린다는데 너도 같이 갈래?
학생 1: 응, 좋아.

- ① ㉠은 능동의 동사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실현된 피동 표현이다.
- ② ㉡은 피동 접미사 ‘-리-’가 쓰인 동사의 어간에 ‘-어지다’가 중복해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③ ㉢은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쓰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뀔 경우 ㉤의 주어가 목적으로 바뀐다.
- ⑤ ㉤은 행사를 여는 주체보다 ‘유기견 보호 행사’가 강조되는 효과가 드러나는 피동 표현이다.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조사와 어미는 앞말의 뒤에 붙어서 문장 안에서 문법적 의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보기 2>

나랏 말씨미 ㉠ 中國國語에 달아 文暁字종와로 서르 스몓디
 ㉡ 아니홀썩이 이런 전츠로 ㉢ 어린 百穉姓성이 니르고져 홀 ㉣ 배
 이셔도 믫츨내 제 ㉤ 뜨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니라
 - 『훈민정음』 언해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
 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탐구 대상	비교 대상	탐구한 내용
① ㉠의 '에'	'중국과'의 '과'	'에'는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② ㉡의 '-르썩'	'아니하므로'의 '-므로'	'-르썩'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③ ㉢의 '-니'	'어리석은'의 '-은'	'-니'는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④ ㉣의 'ㅣ'	'바가'의 '가'	'ㅣ'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⑤ ㉤의 '을'	'뜻을'의 '을'	'을'은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 구매하려는 제품의 특징, 그리고 구매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제품에 기울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진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의 '관여도'이다.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비자의 관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소비자는 이 요인을 통해 의미를 ㉡ 부여한 특정 제품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품위 있는 겉모습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 소비자는 자신의 품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특정 의류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제품에 의한 요인은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 특징은

[A] 대다수의 소비자들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 제품에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실용성을 극대화하여 제작된 특정 주방 기기가 있다고 한다면, 실용성을

㉢ 추구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제품에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비해 지속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평소 오디오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가 가족들을 위해 오디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디오에 대한 관여도는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결정되는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관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제품 판매자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제품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판매 전략을 세운다.

'FCB Grid 모델'은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은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차원은 소비자가 구매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반응하는 ㉣ 경향에 따라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로 구분하는 것이다. FCB Grid 모델에서의 고관여와 저관여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관여는 구매할 제품이 소비자들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제품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경우 등에 주로 나타난다. 반면 저관여는 고관여와 각각 반대인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고관여일 때와 저관여일 때가 다르다. 즉 고관여일 때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저관여일 때는 고관여일 때보다 노력을 덜 기울인다. 한편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이성적 혹은 감성적 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성적 관여는 특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편리함, 성능, 실용성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성적 관여는 특정 제품에 대해 충족감, 즐거움, 자부심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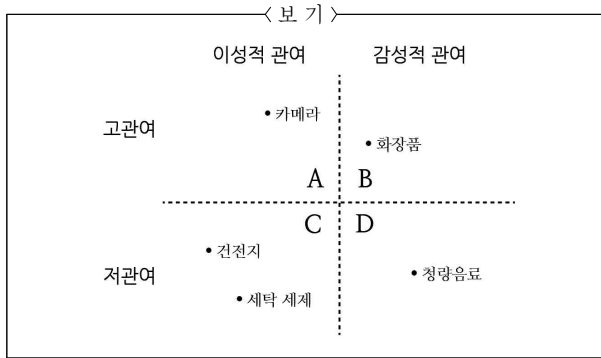
이러한 FCB Grid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 고관여이며 이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편리함, 성능, 실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관여이며 감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광고 문구,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관여이며 이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할인 권이나 견본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을 먼저 직접 경험하게 한 후 제품을 습관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관여이며 감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광고에 인기 모델을 등장시켜 소비자가 이 모델과의 동일시를 통해 신중한 고민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충족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안된 FCB Grid 모델은 제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나 시장 상황이 늘 변하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 판매자들은 FCB Grid 모델을 활용하되 제품 판매와 관련된 역동적이고 복잡한 제반 여건을 ㉤ 반영하여 판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정도는 다르다.
- ②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이다.
- ③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 ④ 'FCB Grid 모델'에 의해 제품이 분류된 양상은 사회의 변화와 문화권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FCB Grid 모델'은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모델이다.

※ <보기>는 특정 시기의 'FCB Grid 모델'의 일부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17번과 18번 물음에 답하시오.



17. 다음의 ㉠~㉣을 <보기>의 A~D로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람들은 ㉠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어 의약품의 효능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한다.
- 사람들은 가격이 싼 ㉡ 볼펜에 대해서는 성능을 따지기보다 예쁜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고려하여 즉흥적으로 볼펜을 구매한다.
- 사람들은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 휴대폰에 대해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구매한다.
- 사람들은 ㉣ 통조림이 쉽게 음식이 상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구매한다.
- 사람들은 ㉤ 반지가 고가인 경우에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구매한다.
- 사람들은 ㉥ 치약이 구강을 청결하게 해 준다는 실용적인 기능 외의 다른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쉽게 구매한다.

- | | A | B | C | D |
|---|------|------|------|------|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18. <보기>의 A~D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메라 홍보 책자를 제작할 때는 제품의 구조나 작동 방식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카메라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 ② 화장품 광고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구를 통해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③ 대형 판매점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소량의 건진지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한다.
- ④ 세탁 세제를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부담 없이 구매하여 사용해 보게 한다.
- ⑤ 텔레비전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이 청량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여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자신과 연예인을 동일시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1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렸을 때부터 갑은 운동보다 독서를, 을은 독서보다 운동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며 살아왔다. 그래서 갑은 서적에, 을은 운동 기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갑은 독서보다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해져서 운동 기구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은 자전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운동 기구이어서 자전거를 구입해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을은 갑을 위로하기 위해 평소 관심이 없었던 시집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그 중 한 권을 구매해 선물하였다. 갑은 지금 시집보다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입하고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건강이 회복되지 운동을 그만두고 을이 선물한 시집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독서에 전념하였다.

- ① 갑은 자전거가 지닌 특징인 제품에 의한 요인에 의해 자전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 ② 갑은 체력이 약해졌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운동 기구에 대한 관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군.
- ③ 을은 갑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 ④ 을은 갑을 위로해야 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서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 ⑤ 갑과 을은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해 각각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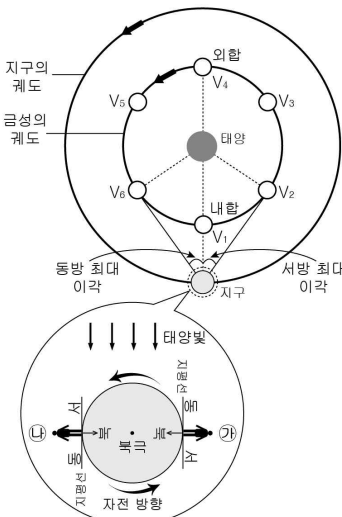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 ② ㉡: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의 따위를 붙여 줌.
- ③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④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⑤ ㉤: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냄.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성의 다른 이름인 ‘새별’은 새벽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성에 ㉠ 붙인 이름이다. 실제로 금성은 하루 종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천체의 ‘걸보기 운동’과 관련이 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일 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관측자가 하늘의 천체를 볼 때, 관측 시기에 따라 천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관측자에게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할 때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걸보기 운동’이라 한다.



[그림]

고 있으면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의 방향이므로 하늘의 천체는 상대적으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결국 걸보기 운동은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도 걸보기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천체인 내행성, 지구, 태양의 위치 관계를 내행성 중 하나인 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태양, 금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를 ‘합’이라고 하는데, 지구-금성-태양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내합’, 지구-태양-금성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외합’이라고 한다. 또한 지구상의 관측자가 태양과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한다. 즉, 관측자가 보았을 때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거리*로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각’은 다시 ‘동방 이각’과 ‘서방 이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그림]의 V5, V6에서처럼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경우와 V2, V3에서처럼 서쪽에 있는 경우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금성이 V6과 V2에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때의 이각을 각각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한다.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 상대적 위치 관계 등을 바

걸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마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사물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림]의 ㉡, ㉣에서처럼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할 때,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

탕으로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과 시간, 위상과 크기, 밝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은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그림]에서 금성이 외합인 V4에서 내합인 V1사이인 동방 이각에 위치하고, 관측자가 ㉡에서 있다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관측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관측자의 위치가 ㉣로 변하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고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태양이 진 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반대로 금성이 서방 이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관측자는 ㉣가 아닌 ㉡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태양과 금성, 지구의 위치 관계가 내합과 외합일 때에는 금성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되기 어렵다. 따라서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 또는 서방 최대 이각의 안쪽에 위치할 때만 관측 가능하고, 합·외합의 위치에서는 관측이 어려운 것이다. 한편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금성의 이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각이 클수록 태양과 금성의 각거리는 커지므로 금성을 더 오래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성은 최대 이각에 위치할수록 오래 관측되고, 합에 위치할수록 짧게 관측된다. 이런 이유로 금성은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좌, 우 일정한 이각 내에서만 관측된다.

또한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는 금성의 위치, 지구와 금성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금성의 위상은 금성이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보이는 모양으로,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태양빛을 받는 면이 지구를 향하는 정도에 따라 보이는 형태가 다르다.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보이는 크기가 줄어들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전체를 볼 수 있어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반면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지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일부분만 볼 수 있으므로 초승달 또는 그믐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그리고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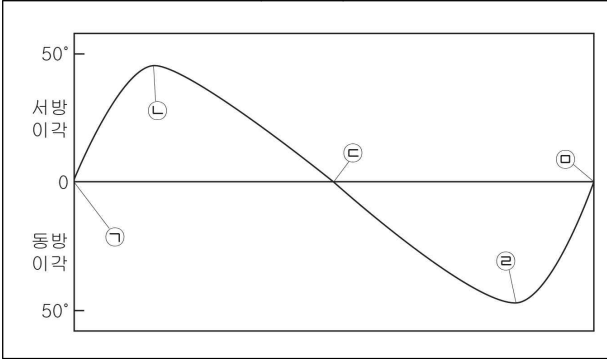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합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 일정 위치까지는 보이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여 더 밝게 보인다. 그러다가 일정 위치를 지나 내합의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보다 보이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밝기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금성의 밝기는 내합을 지나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다가 서방 최대 이각에 가까워질수록 밝기가 줄어들게 된다.

* 각거리: 관측자로부터 두 천체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로 나타내는 천체 간 거리.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측자가 관측한 천체의 움직임은 천체의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다.
- ② 걸보기 운동은 천체를 중심으로 관측자의 위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 ③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천체의 위치는 관측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 ④ 걸보기 운동에서 보이는 천체 움직임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이다.
- ⑤ 북반구 중위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는 관측자에게 서쪽은 관측자의 왼쪽 방향에 해당한다.

※ 다음은 금성의 이각을 일정 기간 지구에서 관측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그래프를 바탕으로 22번과 23번 물음에 답하시오.



22. 윗글을 읽은 학생이 ㉑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㉑~㉔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금성의 위치가 ㉑일 때, 금성은 태양보다 (㉑)에 위치하지만,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㉑) 하늘에서 볼 수 있어. 그러므로 새벽에는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㉑)에, 초저녁에는 지평선 (㉑)에 있겠군.”

- | | | | | |
|---|----|----|----|----|
| | ㉑ | ㉒ | ㉓ | ㉔ |
| ① | 동쪽 | 서쪽 | 위 | 위 |
| ② | 동쪽 | 서쪽 | 아래 | 위 |
| ③ | 서쪽 | 동쪽 | 위 | 아래 |
| ④ | 서쪽 | 동쪽 | 아래 | 위 |
| ⑤ | 서쪽 | 동쪽 | 아래 | 아래 |

23. 윗글을 바탕으로 ㉑~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금성의 이각이 ㉑에서 ㉒으로 변할수록 각거리는 커지며,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진다.
- ② 금성의 이각이 ㉑에서 ㉒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며, 점점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 ③ 금성의 이각이 ㉑에서 ㉒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며, 점점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금성의 이각이 ㉑에서 ㉒으로 변할수록 각거리는 작아지며, 관측자에게 보이는 형태가 점점 달라진다.
- ⑤ 금성의 이각이 ㉑에서 ㉒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며, 점점 초승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24. 윗글과 <보기>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지구 공전 궤도보다 바깥쪽을 도는 천체를 외행성이라 하는데, 지구에서 관측하기 쉬운 외행성은 화성이 대표적이다. 화성, 지구, 태양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태양-지구-화성의 순으로 위치할 때를 '충'이라고 하며, 화성-태양-지구의 순으로 위치할 때를 '합'이라 부른다. 또한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90°로 놓이는 때를 '구'라고 하는데, 화성이 동쪽에 있으면 '동구', 서쪽에 있으면 '서구'로 구분한다. 또한 화성은 이각이 180°일 때 가장 밝게 보이며,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즉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더 크게 관측되지만, 멀수록 더 작게 관측된다.

- ①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크게, 화성은 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 ②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합에서 가장 작게 관측된다.
- ③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 ④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작게 관측된다.
- ⑤ 금성은 외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구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다.

25. 밑줄 친 단어 중, ㉑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운동을 해서 다리에 힘을 붙였다.
- ②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붙여 왔다.
- ③ 아이와 정을 붙이고 나니 떨어지기가 싫다.
- ④ 아이들에게 희망을 붙이고 사는 것이 큰 낙이다.
- ⑤ 그는 자기 소설에 어떤 제목을 붙일까 고민 중이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쇠는 역시 아무 대꾸가 없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구? 자네는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네마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가 어디 있나? 사람에게 수족을 붙여준 것은 일하라는 것이지 남을 함부로 때리라는 것은 아니야.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이기는 일반이라 하면 제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그리 등분이 없을 게다. 덮어 놓고 제 뜻만 맞추라고 남을 강제하는 것은 포박한 것이 아닌가? 열거박이”를 밟다고 암만 두드려 준대야 그게 별안간 뻥질 뻥질해질 이치는 없지! 자네는 오늘부터 짐승을 배우게!”
 “무얼? 짐승을?”
 하고 용쇠는 얼굴이 빨개지며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래! 짐승을 배우란 말이야! 자네 집에 제비가 제비 새끼를 치지 않는가? 그 어미 제비를 배우란 말이야! 공자님의 말이 나 누구의 말보다도.”
 용쇠는 그제 무슨 소리인지 다만 자기를 모욕하는 줄만 알았다. 그제 ㉑ 속으로는 분하였지만 그대로 참고 들었다.
 용쇠가 이렇게 혼이 난 뒤에 동리 사람들은 더욱 정도령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기는 그전부터 하였다. 그것은 그의 건장한 체격과 또한 그의 의리 있는 심지가 누구든지 자연히 그를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였다.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속으로는 그의 행동을 감복하였다. 그제 그의 이름이 근사한 것을 기화로 그를 모두 계룡산 정도령(鄭道令)이라 하였다.

그에 대한 이러한 존경은 건넌말 양반촌에서도-유명한 김 주사까지도-그를 만만히 보지 못하였다. 그래 고양이 있는 집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생쥐같이 지내던 이 동리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힘을 입었다. ㉠ 그래 이 동리 사람들은 어른 아이 없이 그를 참으로 정도령같이 믿으며 그의 말이라면 모두 복종하게 되었다. 물론 이 동리의 크거나 적은 일은 그의 계획과 지휘로 해결되었다. 그런데 그를 그중 사랑하기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었다. 그것은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횡포를 규탄해 주는 여담으로 그러하였다. 마치 일전에 용쇠를 혼내 주듯 하므로.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이 동리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가련하였다. 용쇠는 그래도 딸이나 팔아먹었지마는 늙은 부모하고 어린 자식들에 식구는 우글우글한데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는 집이 경성드뭇하였다*. 더구나 지금은 농가에서는 제일 어려운 보릿고개를 당한 판이니까. 모는 심어야겠는데 보리는 아직 덜 익어서 채 익지도 않은 꽃보리를 베어다가 뽕안 물을 짜내서 죽물을 끓여 먹는 집도 많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마을의 지주 김 주사는 총이네가 소작하던 눈을 하루아침에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긴다. 소작하던 눈을 떼이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총이 조모는 김 주사를 찾아간다.

김 주사는 감투를 쓰고-그는 지금 도 평의원이다마는 감투 쓸 일은 이 밖에도 많다. 전 금융조합장, 전 보통학교 학무위원, 전 군참사, 적십자사 정사원, 지주회 부회장-(이답에 죽을 때에는 명정을 쓰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직함이 많았다)-점잖은 목소리로 논 때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어태까지 몇 해를 잘 지어 먹었으니 인제는 고만 지어 먹게. 다른 사람도 좀 지어 먹어야지.”

그때 노파는 별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구 나으리! 지금 와서 눈을 떼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 집 식구는 모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개개빌어보았으나 김 주사는 그런 것은 나는 모르고, 내 땅은 내 말대로 언제든지 뺄 수 있지 않느냐-뉘다 불호령을 하였다.

그래도 ㉡ 총이 조모는 한나절을 애걸복걸하며 올 일 년만 더 지어 먹게 해달라 보았으나 그는 도무지 막무가내이었다. 별썰 다시 변통이 없을 줄 안 총이 조모는 그 길로 나오다가 그 집 대들 위에서 그 아래로 물구나무를 서서 고만 그 자리에 즉사하였다. 그는 지금 여든다섯 살인데 여기까지도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기어 왔었다.

그러나 김 주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인을 명하여 송장을 문밖으로 끌어내게 하였다. 그리고 송장 찾아가라고 총이 집으로 전갈을 시키고 일변 구장을 불러서 경찰서로 보고하게 하였다. 김 주사는 마침 그 일인과 술을 먹을 때이므로 그는 물론 튼튼한 증인이 되었다.

행여 무슨 도리나 있는가 하고 기다리던 총이 모자는 천만뜻밖에 이 기별을 듣고 천지가 아득하여 전지도지* 쫓아갔다. ㉢ 그들은 지금 시체 옆에 엎드려서 오직 슬게 통곡할 뿐이었다.

그런데 정도룡은 오늘 자기 집 모를 심다가 이 기별을 듣고는 한 달음에 뛰어들어 왔다. 별썰 마을 사람들은 많이 모여 서서 김 주사의 포악한 행위를 욕하고 있다. 그중에 핏기 있는 원뎅이는 이 당장에 쫓아가서 그놈을 박살내자고 팔을 걷고 나서는데 겁쟁이들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걸로 돈다. 더구나 김 주사 집 땅을 부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별썰부터 공무니를 사리라 든다.

“허-참 그거 원..... 나는 눈을 갈다 왔는데 좀 가 보아야겠군!” 하고 ㉣ 용쇠가 머리를 주죽주죽하며 돌아서는 바람에 나도 나도 하고 몇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려 하는데 별안간 정도룡은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동리에 큰일이 났는데 제 집 일만 보러 드는 너놈들도 김 주사 같은 놈이다.”

이 바람에 개 한 마리가 자지러지게 놀라서 깨갱거리며 달아난다. 그래 그들은 머주하니 돌쳐섰다. 이때의 정도룡은 눈에서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아이들을 늘어 놓아서 들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그들은 그의 전갈을 듣고 모두 뛰어들어 왔다. 더구나 용쇠 같은 이 뉘단 말을 듣고.

정도룡은 그들을 일일이 지휘하여 일 치를 순서를 분배한 후 나머지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위선 김 주사 사는 동리로 급히 갔다.

- 이기영, 「농부 정도룡」 -

- * 열거박이: 얼굴에 흙이 많은 이를 이르는 말.
- * 경성드뭇하다: 많은 수효가 들성들성 흩어져 있음.
- * 전지도지: 엎드려지고 굽드려지며 몹시 급히 달아나는 모양.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외양 묘사를, [B]에서는 배경 묘사를 통해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열거를, [B]에서는 행위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인물의 대립을, [B]에서는 상황 제시를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지주의 부당한 행위와 이로 인해 꺾박받던 궁핍한 소작농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인,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며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① ‘용쇠를 혼내 주듯’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횡포를 규탄’하는 정도룡의 모습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태도를 알 수 있군.
- ② ‘동리 사람들’이 ‘꽃보리’로 ‘죽물을 끓여 먹는’ 모습에서 일제 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삶을 알 수 있군.
- ③ ‘내 땅은 내 말대로 언제든지 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김 주사의 모습에서 소작농을 꺾박하는 지주의 태도를 알 수 있군.
- ④ ‘김 주사 집 땅을 부치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며 ‘공무니를 사리’는 모습에서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알 수 있군.
- ⑤ ‘총이 조모’의 장례를 ‘일일이 지휘하’는 정도룡의 모습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의 실천적 노력을 알 수 있군.

28. ㉠ ~ ㉣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쇠의 뉘우침이 드러나 있다.
- ② ㉡: 정도룡에 대한 동리 사람들의 신뢰감이 드러나 있다.
- ③ ㉢: 지금까지 소작하던 눈을 떼인 총이 조모의 막막함이 드러나 있다.
- ④ ㉣: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총이 모자의 애통함이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도룡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남은 다 자는 밤에 넉 어이 홀로 씨야
옥장(玉帳) 깊은 곳에 자는 넉 싱각는고
- ㉡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라

- 송이 -

(나)

그립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마음은 바람에 나무끼는 종이 연 같아라
㉢ 돛자리라면 말아 두고 돌이라면 굴러 낼 수 있으련만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들
아득한 시름은 끝이 없어라

㉣ 홀로 앉아 공후를 타니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다 타도록 비단 적삼 젖는 줄도 몰랐네
원컨대 쌍쌍이 나는 ㄴ가 되어서

임 향한 창 앞에 서 있고자

원컨대 밝은 달이 되어

임의 창문 휘장 뚫어 비취 들고자

㉤ 슬픈 노래 잠 못 드는 밤 어찌 이리 긴고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끓노라

- 성현, 「장상사(長相思)」 -

(다)

명황(明皇)*은 귀비(貴妃)*를 주거나 여혀여니

썩다 썩다 흔들 우리 마티 설울런가

사라져 못 보니 더욱 흐나 망극(罔極) 흐다

수심(愁心)은 불이 되어 가슴에 피여나니

절로 난 그 불이 늪의 맛도 아니로되

내히 하 설위 수인씨(嬪人氏)*를 원(怨) 흐노라

함양궁전(咸陽宮殿)*이 다른 삼월(三月) 불거셔도

지금(至今)에 그 불을 오래 타다 흐것마는

이 원수(怨讎) 이 불은 몇 삼월(三月)을 디내려고

눈물은 임우(霖雨)이 되고 한숨은 벼름이 되어

불거니 썩리거니 그출 적도 업서시니

이 비로 더 불을 썩죽도 흐다마는

엇지 흔 ㄴ인디 풍우중(風雨中)에 타노왜라

수화상극(水火相克)*도 거죽말이 되었고야

피거니 썩리거니 승부(勝負) 업시 싸호거든

조고만 흔 몸은 전장(戰場)이 되었는디

아이고 하느님야

칠석(七夕)비 느리워 이 싸흠 말이쇼셔

어옛썩 이 몸은 살가 너겨 브라너디

알고져 전생(前世)의 므슴 죄(罪)를 지어두고

여훤 제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는고

스랑은 혜염업서* 노소(老少)도 모르느가

십년전(十年前) 맹서(盟誓)를 오늘 므득 싱각하니

금석(金石) 갓튼 말숨이 어제론덧 그제론덧 귀에 징징하야시니

이 므음 이 맹서(盟誓) 진토(塵土)이 되다 니줄소나

아소은 내 썩은 다시 불가 브라거든

일년(一年) 삼백일(三百日)에 니친 홀니 이실소나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명황, 귀비: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 안사의 난으로 양귀비가 죽음.

*수인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불을 쓰는 법을 전하였다고 함.

*함양궁전: 진나라 때 중국 함양에 지어진 궁전으로 항우가 불태웠는데 삼 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함.

*수화상극: 물과 불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

*혜염업서: 생각이 없어서.

29. (가) ~ (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남'과 화자의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 화자가 놓인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② ㉡: 화자의 '꿈'을 통해 화자가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돛자리', '돌'과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을 통해 화자의 맺혀 있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연주하는 '공후'의 소리를 통해 화자의 답답함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충신연주지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를 의미하는데, (나)와 (다)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담은 노래들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별이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생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과 그리움을 주로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나)의 '그리운 사람'이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라고 한 것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나)의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끓노라'라고 한 것은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다)의 '수심'이 '가슴'에 피어난 것이 '늪의 맛도 아니로되'라고 한 것은 신하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을 원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다)의 '여훤 제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는고'라고 한 것은 신하가 왕이 오랫동안 이별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나)의 '밝은 달이 되어' '임의 창문 휘장'에 비추겠다는 것과 (다)의 '내 썩은 다시 불가 브라거든'이라고 한 것은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겠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심리 전환을 표출하고, ㉡은 화자의 성격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은 화자의 미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내적인 갈등을 강조하고, ㉡은 화자의 외적인 화해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은 화자의 애타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은 화자의 반성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은 화자의 실천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의 심리 철학에서는 ‘정서’라는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의 주관의 정신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정서와 감정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정서의 본질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는 크게 두 방향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주의적 이론’이다. 다음 사례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요소를 바탕으로 두 이론의 대립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민호가 전신주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신주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났고 민호는 갑자기 공포에 빠져들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민호의 공포라는 정서에서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느낌이고,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연기를 보았을 때 ‘민호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다. 감정 이론은 전자를 중심으로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후자를 중심으로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다.

㉠감정 이론은 특정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특정 감정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감정 이론에 따르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정 이론은 앞의 예에서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적 요소와 동일시하면서 민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요소는 배제한다. 인지적 요소인 판단과 믿음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연기를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기’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는데, 감정 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한다. 또한 감정을 바탕으로 할 때,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된다.

감정 이론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공포의 정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보다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감정 이론은 정서들을 분류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감정 이론은 감정 외적인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각각의 정서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감정 이론은 정서가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정 이론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감정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적인 감정과 동일시되는 정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이론은 그 정서의 규범적인 적절성 여부, 즉 그 정서가 당위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의 인지적 요소를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고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일 뿐이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변압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믿는 것을 민호가 경험하는 공포라는 정서 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이 공포라는 정서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호의 공포감은 민호의 판단과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된 감정일 뿐이라고 본다.

인지주의적 이론의 장점은 앞서 언급한 감정 이론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들을 개별 정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서를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가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주의적 이론이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판단과 믿음에는 당위적인 가치 기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 철학은 두 이론을 정서의 다면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바탕으로 삼되, 두 이론과 달리 정서의 다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3.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대비되는 두 이론을 소개한 후 각 이론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두 이론의 가설을 제시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두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제시하고 그들이 후속 연구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에 대해 새롭게 등장한 두 이론과 각각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기존 이론의 등장 배경과 대비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집에 가던 수아는 갑자기 비가 내리자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수아를 본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를 만난 수아는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

- ① 감정 이론에 따르면, 수아가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만난 특정 시점에서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수아가 느낀 감정인 행복감 자체와 동일시된다고 보겠군.
- ② 감정 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이해하려면 ‘수아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해야겠군.
- ③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자신을 본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됨으로써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겠군.
- ④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⑤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수아의 판단은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 상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었군.

35. 윗글과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정서의 본질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은 정서의 본질을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려고 했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도,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서 초래된 외적인 반응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현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감정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을 통해서 인지적인 요소가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②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인 정서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 ③ 감정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과 달리,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정서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 ④ 행동주의 이론은 감정 이론과 달리, 인간의 정서는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정서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⑤ 행동주의 이론은 인지주의적 이론과 달리, 인간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아닌 특수한 대상에 적용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정서에서의 감정적 요소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36.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제임스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공포라는 정서 상태에 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특정 느낌을 동반한다. 제임스는 이러한 느낌을 중심으로, 느낌들의 복합체, 즉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한다.

- ① ㉠과 ㉡는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겠군.
- ② ㉠과 ㉡는 느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서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겠군.
- ③ ㉠과 ㉡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정서의 속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겠군.
- ④ ㉠은 감정과 정서의 속성을 동일시하여 정서를 이해하려 하고 있군.
- ⑤ ㉡는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하여 정서를 이해하려 하고 있군.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정서가 규범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②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사람들이 느끼는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 ③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특정 요소만을 강조하여 정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 ④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정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 ⑤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상황에 따른 정서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 당위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직업소개에는 실업자들이 일터와 같이 출근하였다. 아무 일도 안하면 일할 때보다는 야위어진다. 검푸른 황혼은 언덕 아래로 깔리어오고 가로수와 절망과 같은 나의 기-느 그림자는 군집(群集)의 대하(大河)에 짓밟히었다.

바보와 같이 거물어지는 하늘을 보며 나는 나의 키보다 얇은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병든 나에게도 고향은 있다. 근육이 풀릴 때 향수는 실마리처럼 풀려나온다. 나는 젊음의 자랑과 희망을, 나의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와 함께, 못사람의 웃음과 발길에 채이고 밟히며 스미어오는 황혼에 맡겨버린다.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은 시끄러이 떠들며, 부산-히 어둠 속으로 흩어져버리고, 나는 공복의 가는 눈을 떠, 희미한 노등(路燈)을 본다. 띄엄띄엄 서 있는 포도(鋪道)* 위에 일새 없는 ㉠ 가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하고나.

고향이여! 황혼의 저자에서 나는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찾아 나의 마음을 전서구*와 같이 날려보낸다. 정든 고샅*.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에는 몇 나절의 때묻은 회상이 맺혀 있는가. 우거진 송림 속으로 곱게 보이는 고향이여! **병든 학**이었다.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날이 늘어나가고, 나는 병든 사나이. 야윈 손을 들어 오랫동안 타태*와, 무기력을 극진히 어루만졌다.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문어버린다.**

- 오장환, 「황혼(黃昏)」 -

*포도: 포장도로.
 *전서구: 편지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게 훈련된 비둘기.
 *고샅: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타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나)

모래는 모두가
작지만 고집센 한 알이다
그러나 한 알만의 모래는 없다
한알한알이 **무수하게 모여서 모래다**
오죽이나 외로워 그랬을까 하고 보면
웬걸 모여서는 서로가
모른 채 등을 돌리고 있는 모래
모래를 서로 손잡게 하려고
신이 모래밭에 하루종일 봄비를 뿌린다
하지만 뿌리면 뿌리는 그대로
모래 밑으로 모조리 새나가 버리는 봄비
자비로운 신은 또 민들레 **꽃씨**를
모래밭에 한 움큼 날려 보낸다
썩트는 법이 없다
더 이상은 손을 쓸 도리가 없군
구제불능이야
신은 드디어 포기를 결정한다
신의 눈 밖에 난 **영원한 갈증!**

- 이형기, 「모래」 -

(다)

여러 사람이 맨살 부대끼며 오래 살다보면 어느덧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 거울 대한 듯 비슷비슷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 여럿 중의 평범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기성품처럼 개성이 없고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세기(世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닮지 않은 개인이나 탁월한 천재가 과연 있는가. 물론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외형만 그럴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수한 개인'이란
㉠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소설 속에나 있는 것이며, **천재**란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순간의 독창이 아니라 **오랜 중지(衆智)의** 집성이며 협동의 결정(結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고 있는 것은 아무리 **담장을 높이**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어 함께 햇빛을 나누며,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폐가 중간에 들면, 쌀이 남고 소금이 부족한 사람과, 소금이 남고 쌀이 부족한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천 갈래 만 갈래 분업과 **거대한 조직**,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물신성(物神性)***은 사람들의 만남을 멀리 떼어놓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뜻을 깨닫기 어렵게 합니다.
같은 이해(利害), 같은 운명으로 연대된 '한 배 탄 마음'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지혜이며, 한 포기 미나리아재비나 보잘것없는 개똥벌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열린 사람'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산봉우리의 낙락장송보다 수많은 나무들이 **함창하는 숲** 속에 서고 싶습니다. 한 알의 물방울이 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바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지막한 동네에서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싶습니다.

- 신영복, 「비슷한 얼굴-계수님께」 -

* 중지: 여러 사람의 지혜.
* 물신성: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가 그가 소유한 물질과 물질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회 현상의 성격.

3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영단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처음과 끝에 동일한 구절을 배치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황혼」에는 1930년대 도시 노동자로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특히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 속 화자와 나날이 퇴락해 가는 고향, 이 모두가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① '병든 나', '병든 학'을 통해 화자와 고향 모두가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너는 날마다 아위어가는'을 통해 나날이 퇴락해 가는 고향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나가고'를 통해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물어버린다'를 통해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은 종종 집단 속에 놓인 개인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드러낸다. 독선적인 태도를 지닌 개인은 스스로를 소외시켜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하는 개인은 서로에게 기대면서 집단 속에서 완성되며 공동체적 삶을 이룩하게 된다.

- ① (나)의 '무수하게 모여서' 된 '모래'와 (다)의 '맨살 부대끼며 오래 살아 가는 '여러 사람'은 모두 집단 속에 놓인 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나)의 '모른 채 등을 돌리'는 행위와 (다)의 '담장을 높이'는 행위는 연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③ (나)의 '봄비를 뿌려주는' '신'과 (다)의 '거대한 조직'에서 생겨난 '물신성'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외의 원인에 해당한다.
- ④ (나)의 '꽃씨가' '썩트는 법이 없'는 '모래밭'은 개인들의 황폐한 삶을, (다)의 '오랜 중지의 집성'인 '천재'는 집단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개인의 삶을 보여준다.
- ⑤ (나)의 '영원한 갈증'은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삶의 모습을, (다)의 '함창하는 숲'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룩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4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성숙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② ㉠, ㉡은 모두 자족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③ ㉠은 단절의 이미지가, ㉡은 소통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④ ㉠은 고독의 이미지가, ㉡은 고립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⑤ ㉠은 상생의 이미지가, ㉡은 공존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인이 문 앞,
 “네 나이 몇이나 하며, 또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네 부모는 어떠한 사람이뇨.”
 문거늘, 장경이 답 왈,
 “연은 십삼 세요, 이름은 장경이로소이다. **아버이를 난중에 잃고 어찌할 줄 모르고 두루 다니며 빌어먹삽네다.**”
 주인이 자탄 왈,
 “나의 자식과 연갑이로다. 한가지로 다니며 **불 사환**이나 하라.”
 하거늘, 장경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더라.
 그 주인은 그 고을 **관비** 차영이라. 세간이 요부하매* 장경을 달래어 제 자식의 구실을 시키고, 제 자식은 행신코자 하여 장경을 집에 두고 부려 보니 영민하거늘, 관가의 대임소지로 정하니, 관가에서 장경을 부려 보니 영민하거늘, 그날부터 **방자 구실**을 하되 수청을 잘하니 사람마다 칭찬하더라.
 각설이라. 차영이 무상하여 장경의 머리도 아니 빗기고 옷도 아니 하여 주니, **의상이 남루한 중에 머리에 이는 무수하고 몸에는 더러운 내가 나니**, 동무 방자들이며 관속배가 곁에 오지 못하게 하니, 독부 되어 그 정상이 차마 보지 못할러라. 그러하기로 혹 마루 밑에도 자고 부엌에서도 자며 어미를 부르다가 날이 새면 방자 구실을 하여 지내더니, 일일은 저 입고 온 옷이 헤어져 옷깃만 남았으니, 부모를 생각하고 슬피 울다가 옷을 벗어 이를 잡노라 혼술기를 떼어 보니 하였되,
 “여남 복촌 설학동 처사 장취의 자 경(景)이요, 자는 각(珏)이라. 기사년 십이월 이십육일 해시생이라.”
 하였거늘, 장경이 그 글을 보고 부친 유서와 필적을 보고 통곡하다가 모친 지환과 유서를 한데 간수하고 매일 슬퍼하더라.
 그 고을에 초운이라 하는 기생이 있되 나이 십삼 세라. 남방 제읍에 유명하더니, 초운이 매일 장경을 여여뻐 여겨 관가 제반도 얻어 주며, 머리에 이도 잡아 주며 배고파하면 제 밥을 갖다가 주며, 따뜻한 음식을 얻어도 저는 아니 먹고 가져다가 먹이고, **장경 곧 울면 저도 우니** 보는 사람이 아니 괴이히 여길 이 없더라.
 이러구러 초운이 나이 십칠 세라. 옥안운빈(玉顔雲鬢)이며 설부화용(雪膚花容)*은 남방에 유명한지라. 사람마다 천금을 싣고 취코자 하되, 초운의 마음이 철석같아서 몸을 허하지 아니하고 ㉠ **매일 장경만 잊지 못하니**, 제 부모 초운을 불러 이르되,
 “우리 너를 낳아 괴로이 길러 나이 이제 장성하였으니 천금을 받아 우리 주립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네 부모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초운이 대 왈,
 “내 몸이 비록 천하나 천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기를 내 또한 고집하니 거스르지 마옵소서.”
 하니,
 “네 마음이 그러하면 재상의 첩이 되고자 하느냐,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느냐, **명사를 좃고자 하느냐**, 수재를 섬기고자 하느냐.”
 초운이 대 왈,
 “만약 진 시절에 동산수재하던 사안석 같으면 가히 재상의 총첩이 될 것이요, 삼국 시절에 사인오국하던 주공 곧 같으면 가히 절도사의 부실이 될 것이요, 한무제 시절에 봉황곡 타던

사마상여 같으면 가히 부실이 될 것이요. 이제 늙은 천하에 어찌 그런 사람이 있어 섬기리까. 장경은 비록 인물은 남루하나 형산백옥이 진도에 묻혔으되,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나 불구에 대장군 인검을 잡을 사람이니, 천금은 쉬우나 이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아니하오니, 부모는 초운의 군은 절개를 훼손치 말으소서.”
 하니, 부모 천금을 못 얻고 마음에 애연하여 장경을 원망하더라.

[종락 부분의 줄거리] 이후 장경은 소 목사를 따라 황성으로 가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오른다. 원수가 되어 남이적을 멸하고 황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운과 다시 만난다.

원수가 초운을 보며 전일을 생각하고 슬픔이 간절하나 잠깐 참고 문 왈,
 “네 이름이 남방에 유명하매, 한 번 보고자 하여 부른즉, 무슨 병이관테 즉시 아니 오느냐.”
 초운이 여쭙오되,
 “소인의 병은 누년이 지나되 백약이 무효하오니 민망하여이다.”
 원수 왈,
 “온갖 병이 다 각각 근본이 있는지라. 너는 무슨 근본이 있느냐.”
 초운이 여쭙오되,
 “황궁하오나 근본을 묻자오니 실상을 아뢰나이다. 과연 이 골에 장수재라 하는 사람과 언약이 중하옵더니, 전관 소목사가 데려갔삽기로 이별 삼 년에 자연 병이 되었나이다.”
 원수 왈,
 “그는 거짓말이로다. 소 목사는 나와 일가라. 내 항상 그 택에 다니되 장수재라 함은 금시초문이로다. 연즉 다른 사람을 인연함이라.”
 초운이 대 왈,
 “어찌 그러하리이까. 원정에 가다가 죽었삽거나 혹 중로에서 버리고 가옵거나 하였나이다.”
 하며 눈물을 흘리거늘, 원수 속이지 못하여 눈물을 뿌리고 왈,
 “네 병이 즉시 나을 약이 내게 있노라.”
 하며 월귀탄을 주시거늘, 초운이 받아 보니 장수재가 이별할 때 드린 것이라. 비록 백 년인들 어찌 모르리오.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생각하되,
 ‘원수가 소 목사의 일가라 하니, 분명 장수재의 서간을 가져왔거나 불연즉 나를 취코자 앓아 읊이라.’
 하더니, 원수 초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운량은 나를 모르느냐. 자세히 보아라.”
 초운이 아뢰되,
 “소인은 하방천기라, 존명을 어찌 알리이까.”
 원수 왈,
 “운량 낭랑아, 칠 년 방자 구실하던 장경을 모르느냐.”
 초운이 이 말을 듣고 꿈인 듯 생신 듯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의 소매를 잡고 기절하거늘, 원수 손을 잡고 왈,
 “운량아, 진정하라. 이제는 네 병이 즉시 나으리라.”
 하고 못내 반기거늘, 초운이 겨우 인사를 차려 품을 열고 사운시를 드리거늘 받아 보니 당시 이별시라. 원수 마음이 비창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더라. 초운이 울며 왈,
 “소첩이 잔명을 보전하여 살았다가 오늘날 대원수 행차와 찾오심을 어찌 뜻하오리까.”
 하고 못내 즐기거늘, 원수 소 왈,
 “내 너를 그리던 정곡이야 어이 다 측량하리오.”
 하시니, 일읍 인민이 그제야 장경인 줄 알고 못내 반겨 차례로 문

